

올해의 독립영화 무료상영의 기회

완주 문화시설들 손잡고 23일부터 '품앗이 상영회' 개최

완주군의 문화시설들이 연대해 품앗이 상영회를 연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미디어센터, 구이생활문화센터와 삼례책마을문화센터, 완주미디어센터, 이서문화의집이 오는 23일을 시작으로 올해 독립영화제 화제작을 돌아가며 상영한다. '제1회 완주 품앗이 상영회'로 명명한 이번 행사는 각 읍면이 넓게 분포된 지역 특성상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해진 기획이다. 상영작은 윤가은 감독의 <우리집>(23일 오후 2시, 이서문화의집), 김보라 감독의 <별새>(24일 저녁 7시, 삼례책마을문화센터), 미키 데자키 감독의 <주전장>(25일 오전 10시, 구이생활문화센터), 이육성 감독의 <메기>(30일

오후 2시, 완주미디어센터) 등 총 4편이다. 품앗이 상영회는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선착순 입장이다.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타 지역주민도 관람 가능하다. 김주영 완주미디어센터장은 "상영작들은 모두 올해 화제가 된 독립영화들이다"며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좋은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영선 완주군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미디어센터는 내달 12일부터 3일간 '제1회 완주 농한기 영화제(가침)'를 개최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제1회 완주 품앗이 상영회

11.23 토	우리집	오후 2시	이서문화의집	무료
11.24 일	별새	저녁 7시	삼례책마을 문화센터	무료
11.25 월	주전장	오전 10시	구이생활문화센터	무료
11.30 토	메기	오후 2시	완주미디어센터	무료

마한교육문화회관, 고3 학생 대상 새내기 도전 응원 행사 마련

마한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오는 20일 회관 체육관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이리고등학교와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수고(高)했어, 걱정말고(GO)!' 특별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수고(高)했어, 걱정말고(GO)!'에서는 '한번쯤 내 불만찬 용기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고 최근 책까지 출간하며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여행작가 최세화의 강연과 버스킹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버스킹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에 도전하며 용기를 낸 '사운드 박스' 밴드의 공연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회 새내기들에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한교육문화회관 관계자는 "대학입시를 위해 달려온 수험생들과 고교학업을 마치게 될 청소년들 모두에게 작은 위로와 휴식"이며 "성인이 되기 전 고교에서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고3학생들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답판의 마지막 주제 '놀부의 파멸, 용서와 화해' 펼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3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답판의 마지막 주제로 흥부가 중 '놀부의 파멸, 용서와 화해'를 펼친다. 답(答)판은 국립민속국악원이 판소리의 인류무형유산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기획한 것으로, 올해 총 8회에 걸쳐 상반기 춘향가, 하반기 흥부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진행에서는 2명의 진행자로 원기중(국문학 박사)씨와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 원장, 매 회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판소리 눈대목을 선보이며, 기존 판소리 마니아층은 물론 판소리에 흥미를 느끼는 신규 관객의 유입을 이끌어 등 다양한 관객층을 형성하며 판소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2019년 마지막 공연인 11월 주제는 '놀부의 파멸, 화해와 용서'로, 부자가 된 흥부 얘기를 들은 놀부가 흥부 집으로 찾아가고 흥부 처는 보란 듯이 음식상을 차려나오는 대목을 비롯해 놀부 박을 타며 나오는 사당패, 초라니패, 각설이패와 강남노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본다.



국립민속국악원이 오는 23일 흥부가 중 '놀부의 파멸, 용서와 화해'를 펼친다.

이날 공연에서는 채수정(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교수) 명창이 출연하여 눈대목을 들려 줄 것이다. 답판은 전석 무료이나 국립민속국악원 예음

헌(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만큼 사전예약이 필수로, 전화(063-620-2324~5) 혹은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추가)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로맨틱 코메디 오페라의 대명사

국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22일 부안예술회관서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국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을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맨틱 코메디 오페라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랑의 묘약은 이탈리아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가 1832년 작곡해 초연한 2막짜리 오페라로 프랑스 작곡가 다니엘 오베르의 오페라 '미약'을 위해 외젠 스크리브가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펠리체 로마니가 이탈리아어 대본을 썼다. 오페라 입문용으로 통하는 사랑의묘약은 풀밭이 약장수에서 속아 싸구려 포도주를 사랑의 묘약이라고 믿고 마신 시골 청년 네모니로가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여인 아더나와 맺어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다. 스피디한 희극의 전개속도와 재치 넘치는 등장인물들로 시종일관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한편 웃음 사이사이에 흐르는 우아함과 서정적인 음악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매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많이 참석해 수



준 높은 오페라를 관람하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만 8세 이상 입장이 가능하며 공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동리정사 옛모습 재현 위한 학술대회 열려

조선후기 판소리 이론과 교육의 역사적 현상이었던 '동리정사의 옛모습 재현과 경관지구'를 주제로 제15회 고창판소리학술발표회가 지난 16~17일 고창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올해 고창군은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申在孝, 1812~1884)선생의 400여평 고택을 복원해 '동리정사(桐里精舍) 재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동리정사의 옛 모습을 재현해 내기 위해 동리 신재효 선생의 행적을

정리한 자료, 신재효 선생의 노래(단장가), 증언자료, 박물관 소장자료, 구(舊)지적도, 구(舊)지적대장, 향토연구가의 증언, 전통 가옥인 사랑채의 전반적인 조사와 실측자료 등이 공개됐다. 또 동리 정사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는 시 등이 분석돼 관심을 모았다. 고창군은 동리정사를 중심으로 한 고창 읍내의 비보(裨補) 경관을 분석해 명품 관광지 조성에 밀착함으로써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숨겨진 철의 왕국 가야, 장수가야에서 꽃피우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이태근) 무용단(단장 여미도)의 제28회 정기공연 '숨겨진 철의 왕국-장수가야'가 지난 15일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관객 8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번 작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각각의 독특한 소재와 정체성을 살리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전북 문화브랜드공연으로 기획·제작됐다. 공연은 1980년대 장수에서 고고학자 장교수가 청동거울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인을 만나기 위해 1500년 전 장수가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해 백두대간 서쪽의 철의 왕

국 '장수가야'의와 주란공주와 마천천의 사랑 이야기를 이미지로 그려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숨겨진 가야의 역사와 배경을 더욱 사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객장군 교수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숨겨져 있던 장수가야의 역사가 무용극을 통해 군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1500여년 전 '철의 왕국 장수가야'의 빛나는 역사를 밝혀내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